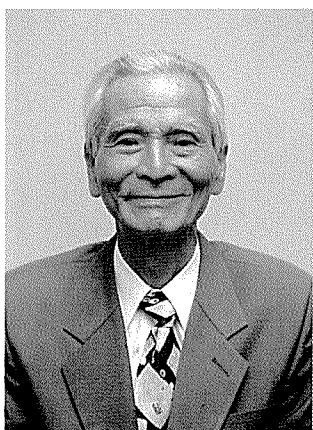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 빵 제조자는 하멜 일행

빵 역사 200여년 앞당긴 중요한 사실 밝혀져

자료 제공: 조승환 / 대한제과협회 초대회장

정리 /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조승환 대한제과협회 초대회장

우리나라에서 처음 빵이 선보인 곳은 제주도이며, 빵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제주도에 표류했던 네덜란드 선원인 하멜 일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제과 업계 원로이자 현재 우리나라 제과사를 집필 중인 조승환(84) 대한제과협회 고문에 의해 처음 밝혀졌다.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으로써 우리

나라 빵의 역사도 17세기로 앞당겨지게 됐으며 빵 도입사 규명 측면에서 큰 전기를 맞이했다.

조승환 고문은 제주도 사람들의 제사상에 오르는 '기주떡'에서 빵의 기원을 찾다가 1653년(효종 4년) 제주도에 표류한 하멜 일행에 주목했다. 그 결과 '하멜 표류기'에서 이들 일행이 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귀중한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멜 일행은 1653년 제주도에 표류해 13년간 억류 생활 도중 몇 번 탈출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식량으로 빵을 준비했다는 기록이 분명하게 나와 있음이 밝혀진 것이었다.

1654년 5월초에... "항해시는(이번에 본국으로 살아 돌아온 3명을 포함해서) 다른 5명의 승무원과 같이 외출했다가 마을을 벗어난 곳에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고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동료 한사람을 수용소로 보내 1인당 두 조각밖에 안 되는 빵과, 이런 일을 위해 미리 만들어 두었던 밧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멜 표류기 중 '빵' 언급 부분, 편집자주>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하멜 표류기에는 '빵'이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언급돼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주도에 표류한 1653년과 빵이 언급된 하멜 표류기상의 일자가 1654년 5월인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빵

이 만들어진 때는 이 사이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제주도 하멜 표류 기념비를 방문한 조승환 고문이 지역 신문에 알려져 제주도가 우리나라에 '서구식 빵의 첫 도입지는 제주'라는 내용이 제민일보(8월 30일자)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 하멜 표류 기념비 앞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처음 빵을 선보인 것은 하멜 일행으로 한국인이 아니다. 당시 식생활 여건으로 볼 때 제주도 사람들이 하멜 일행에게서 제조법을 배워 빵을 만들었을 확률도 적다. 현재로는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와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구한말에 외국 선교사나 러시아 공사 웨베르의 처형(妻兄)인 손탁(孫鐸, 본명 존타크) 부인이 빵을 선보인 이래 한국인들이 빵을 만들어 먹었을 확률이 커 실질적인 한국인에 의한 빵 제조는 근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에 하멜 일행이 우리나라에서 1653년경 처음으로 빵을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을 발견할 것은 그동안 구한말로 알려져 있던 우리나라 빵 제조사의 기원을 200여년 이상 앞당겼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